

진도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일괄 매입 추진



진도군이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공공비축 미곡·시장격리곡을 12월 말까지 매입한다.

12월 말까지...산물벼 매입 시작으로 10179톤 매입 “마지막까지 안전한 수매의 장 될 수 있도록 협조”

매입물량은 공공비축미 5,729톤과 시장격리곡 4,450톤으로 총 10,179톤이며, 지난해 4,317톤 대비 136% 증가한 물량이다.

올해 진도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로 12월 말까지 7개 읍·면의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미곡매입금을 매입 직후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최종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첫 수매현장인 군내면 둔전창고를 지난 4일 방문해 농민들과 민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품종검정제 강화로 농업인이 매입 대상 이외의 품종을 혼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농가 시차제 출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마지막까지 안전한 수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출하품종의 일치여부를 확인(DNA검사)하고 매입품종인 신동진과 새청무 외의 품종이 20% 이상 혼입 시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선정...국비 확보

1억 2천만 원 상당...탄소저감 녹지공간 확보

강진군이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2022년 혁신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청사 내 탄소저감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사업은 조달청 자체 기준에 의해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의 구입 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은 사업에 따른 소요비용 1억 2천만 원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확보해 인구조획과 건물 뒤편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번에 진행된 청사 내 탄소저감 녹지공간 조성은 공공기관 건축물 벽면에 식물 생장이 가능한 녹화장치 구조체와 편백나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일반 화분에 식재를 하는 개념이 아닌 벽면 내 자연지반과 같은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별도의 토지확보가 필요 없는 한국형 벽면 녹화 장치다.

군 관계자는 “녹지 공간 조성으로 청사 주변 미관을 개선함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홍보 시스템 구축해 ‘군민 알 권리’ 보장

실무자 회의 개최...군정홍보 통해 각종 사업 추진동력 확보 주력

장흥군이 군민의 알 권리 실현과 군정 사색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정홍보 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군청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운영계획을 전달했다.

장흥군청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조석훈 부군수가 나서 교육의 취지와 홍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각 부서에서는 주요현안 위주로 홍보자료를 작성하되 시기별, 테마별 특색 있는 내용부터 알려 나가기로 했다.

예산지원 부담이 없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유지에도 적극 나선다.

진행절차는 준비단계, 검토단계, 실행단계 등을 거쳐 각 언론사에 전달하는 완료단계까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결재체계에 차등을 뒀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군정시책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군정홍보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

라”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서남해안권 해양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완도군에서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8회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정기 총회 및 학술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 발표회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바이오 기술을 마련하고자 (사)한국해양바이오학회가 주최(회장 차형준 포스텍 교수)하고 완도군(군수 신우철) 후원으로 개최하게 됐다.

발표회에는 국내외 해양생명공학 분야 대학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Herbert Waite(미국), Wei Zhang(호주) 교수의 기초 강연에 이어 해조류 기능성 소재 개발, 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와 기술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해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개발 등 완도군의 전략도 발표했다.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실장은 “완도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 지역이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국가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고도의 연구·개발 역량 결집을 통해 해양바이오를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KIOST 제주연구소장은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내 핵심 기업을 유치해 해양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군민 안전이 최우선”...명현관 해남군수,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점검

생활자원처리시설 등 찾아 안전관리 점검 및 현업근로자 의견 청취



명현관 해남군수는 4일 관내 주요 현업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강화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명군수는 정례조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대응을 수차례 지시한 가운데,

이태원의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됨에 따라 현장점검에 직접 나서게 됐다.

현장점검은 황산면의 도로 가드레일 교체 현장,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작업, 해남미남축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도로변 작업 시 차량에 의한 사고, 쓰레기 하차 시 덮개 및 재활용품 선별 시 컨베이어에 의한 끼임 사고, 작업장 내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의 예방조치

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오는 11~13일 개최 예정인 해남미남축체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이 일시에 운집할 경우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고, 입출구 등 관람객 동선,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치 등을 상황발생 대처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